

崔振學회장, 대한에이즈협회 창립준비위 참석

에이즈 환자·가족 보호 위한 대책기구로, 오는 7월경 발족



崔振學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崔振學 회장은, 지난 2월 16일 오후 7시,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대한에이즈협회(가칭)」창립 준비위원회의 모임에 참석했다.

에이즈 환자·가족의 보호를 위한 이 협회의 창립을 위해 의학계를 비롯해 법조계·경제계 등 사회단체 인사들로 최근에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이날 첫 모임을 갖고 설립 취지 및 정관 마련 작업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몇차례 모임을 더 가지면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경에 창립될 예정인 대한에이즈협회는 에이즈 감염 예방과 감염자 관리 및 그 가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 첫 민간 대책기구로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창립 후 협회는, 사회적 고립과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AIDS 환자와 가

족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수혈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예방책과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걸린 환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는 한편, 에이즈 발병 위험군에 대한 정기 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에이즈협회 창립 준비위원회는崔회장 외에, 서울의대, 최강원 교수, 연세의대 김준명 교수, 서울의대 안윤옥 교수, 한국여의사회 박양실 회장, 전북법대 김민중 교수 등을 비롯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3백5십여만원 모금

건협 崔振學회장 등, 한국일보사에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崔振學 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백5십여만원을 모금했다.

건협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아진 성금 전액을 지난 2월 13일 한국일보사에 전달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건협, '93년도 건강관리 공개강좌 시작

지부별로 연간 일정 밝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93년도 건강관리 공개강좌 계획을 지부별로 발표했다.

지부별 사정에 따라 분기별, 혹은 월 1~2회씩 오는 12월까지 실시하게 될 이 공개강좌는 각종 질병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법 등에 관해서 분야별 전문의가 강의를 맡게 되며, 강의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 줄 계획이다.

지부 홍보관, 지역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되는 이 공개강좌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가비는 전혀 없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부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3월 중 공개강좌를 실시하는 지부와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서울지부

- 3월 11일 오후 2시 ; 위암 및 위장 질환 (영동세브란스병원 문영명박사) -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 3월 25일 오후 2시 ; 간암 및 간장 질환 (한림의대 최원진박사) -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 부산지부

- 3월 25일 오후 2시 ; 간암(지부홍보관)

◎ 경기지부

- 3월 26일 오후 2시 ; 위암

◎ 전북지부

- 3월 25일 오후 2시 ;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 (예수병원 심장내과 송호신과장) - 지부홍보관

건협 대전·충남지부, 전화번호 변경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청남도지부의 전화번호가 지난 1월 21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변 경 후 | 변 경 전 |
|----------------|----------------|
| 532-9890~2 | 523-2750 |
| 532-9893(FAX) | 533-1430 |
| 523-0660(AIDS) | 525-4091(FAX) |
| | 523-0660(AIDS) |